

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3권 제2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22, 12, Vol. 13, No. 2, 29-68.
doi <https://doi.org/10.12964/jsst.22007>

개(Dog): 애착 외상을 넘어 독립을 향한 여정에서의 반려

Dog: A Companion on the Journey to Independence Beyond Attachment Trauma

유 미 성
Misung Yoo

The English full text is right after the Korean one.

개(Dog): 애착 외상을 넘어 독립을 향한 여정에서의 반려

Dog: A Companion on the Journey to Independence Beyond Attachment Trauma

유 미 성*

Misung Yoo

<Abstract>

The ‘Animal symbol’ symbolizes the primitive and instinctive nature of human beings, and has been psychologically important since ancient times. Among many animals, dogs, in particular, were originally wolves, but were the first to be domesticated by humans. It is an animal that people attach to and regard as a family member because it is absolutely obedient to and dependent on humans when they perceive humans as the leader. However, in most countries, the dog is an animal that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 loyal, home-keeper, but also as a guide between the dead and the underworld and as a human companion. The reason is that although dogs have been domesticated and become new animals, they still have the instinctive characteristics of wolves. Infants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ves also have a time when they rely entirely on their mother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ated dogs. However, when a healthy attachment is formed, the baby is psychologically separated from the mother and self-development begins toward independence. However, if psychological independence is not achieved for some reason, similar to a domesticated dog, they become completely dependent on their mother and are swallowed up by their maternal mother, and they may become stuck in childhood dependence, causing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is case, our reason, guided by the instinctive energy of our inner

* 전주 마라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소장 (tkfk9081685@naver.com)



Copyright ©2022,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dog, begins a healing journey towards independence. In this paper, among the many symbols of dogs, the dog as a symbol of loyalty, the dog as a healing animal, the dog as a guide to the unconscious, and the dog as a symbol of instinct and intuition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dog discussed above was confirmed through the case where a high school client who was psychologically dependent on his mother while having sandplay therapy started a healing journey by using a dog symbolically to achieve attachment and independence.

Key words : symbol, dog, sandpaly therapy, attachment, independent

I. 서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나름의 상징적 의미가 존재하는데, 이 가운데 동물은 인간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성질을 상징하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시대를 불문하고 종교나 예술, 민담 등에서 풍부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Jung은 동물 상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무의식에 속해 있는 것이거나 억압된 본능을 알려주는 무의식적 리비도의 현현이라고 보았다(1968/2009). Donald Kalsched는 어린 시절 애착 외상을 경험한 사람의 자기(self)는 발달하는 부분과 퇴행하는 부분으로 분열되는데 퇴행하는 부분은 취약하고 순수하고 숨겨진 동물적 자기와 같은 강아지 등 애완동물, 특별한 말이나 새와 같은 피겨(figure)로 상징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Kalsched, 2013).

인간과 동물의 유대는 늘 존재했으며 인간은 동물과의 유대를 통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차원에서 위로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반려동물은 반려인의 정서 조절을 도움으로써 정서적 균형을 회복시키고 신체적 활동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향상하게 시킨다는 연구가 있다(Wells, 2009; Zilcha-Mano et al., 2012). 개와 고양이 등 정서적인 교류가 가능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등 인간관계에서 받는 것과 같은 사회·정서적 지지를 지각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김세영, 박형인 2018; Amiot et al., 2016). Sharkin과 Knox(2003)의 연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기 반려동물에게 조건 없는 수용과 사랑을 받으며, 무조건적인 지지를 받는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 중 하나인 개는 인간 환경에 가장 잘 길들여진 동물로서 인간에게 ‘가족’으로 여겨질 만큼 인간과 강한 유대감을 가지며, 개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일관적인 충성심과 순수한 애정 및 사랑은 사람들에게 개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깊은

애착을 맺게 한다. 그러한 이유로 인간에게 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애착 대상이며 인간은 개를 자신의 아이 돌보듯 돌보고 사랑한다. 특히 개가 보여주는 조건 없는 순응성은 사람들에게 감정이입과 자기 개방을 쉽게 해 주고 정서적 교감을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효과가 있다. 동물매개치료에서도 개는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행동까지도 이해하는 능력으로 인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우진경, 2013).

인간이 개에 대해 느끼는 깊은 유대는 많은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대부분 문화에서 개는 충성심, 빈틈없는 주의력, 용기, 사냥 기술 등으로 상징된다. 켈트족 전통에서는 사내다움, 태양, 바람과 불을 상징하고 치유와도 연관이 있다(Turner, 2005/2009). 우리나라에서 개는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 신으로, 예로부터 집 지키기, 사냥, 시각장애인 안내, 호신 등의 역할 뿐 아니라 잡귀와 병 도깨비, 요귀 등을 물리치고 죽은 자와 저승 신들 사이의 안내자이자 인간의 동반자로 인식되었던 상징적 동물이다. 또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하고 미리 재난을 경고하고 예방해 준다고 믿었는데 개의 뛰어난 시각, 청각, 후각 등의 본능적 특성들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나 어둠 속에서 사물들을 예리하게 감지하기 때문이다. 개의 이런 능력은 이성이 아닌 본능적인 행동이며 치유과정에서 본능은 매우 중요하다.

모래놀이에서 내담자의 자아는 생활 연령과는 관계없이 마치 갓 태어난 아기처럼 양육과 지지의 상처가 없는 보다 본능적인 생애 초기로 퇴행하는 경향이 있다(Turner, 2005/2009). 따라서 개의 특성과 상징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애착의 어려움, 애착 외상 등을 경험하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도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애정 어린 관계성의 의미가 있다. 우리는 종종 자기 내면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고통받는 내담자들이 모래놀이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피겨를 선택하면서 치유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영매의 상징성을 갖고 있어서(Cooper, 1978/2012) 이승과 저승을 하나의 발달 단계에서 다음 발달 단계로 나아가는 것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개는 외상적 애착으로 인한 심리적 상태에서 건강한 애착 상태로 갈 수 있게 연결하는 본능적 측면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애착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인 개가 가진 상징성을 기술하고 모래놀이치료에서 부정적 애착 관계에서 독립하려는 내담자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애착과 개

애착은 중요한 타인과의 계속적이면서도 강한 정서적 감정이므로(Bowlby, 1982) 애착 이

론에 근거해 보았을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정서적 충족을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서 느낀다면 이를 사람과 동물 간의 애착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선행 논문들에서도 사람이 반려동물과 형성하는 애착이 사람 간의 애착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정민지, 2019; Brown et al., 1996; Field et al., 2009; Kurdek, 2009; Zilcha-Mano et al., 2012).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개에게 애착을 느끼는 현상에 대해 ‘어머니 현상 (a phenomenon)’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어린 강아지의 귀여운 생김새와 관련이 있다(김소희, 2010). 사람들이 아기를 봤을 때 아기 역시 강아지와 비슷한 애착 반응을 유발한다. 애착이 어느 한쪽이 아닌 상호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을 볼 때 유아나 강아지의 외모는 단순히 보살핌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보살핌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연구자들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사람-동물 유대를 애착의 관점에서 보았다(Hosey et al., 2018). 반려동물과 사람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아이 간 애정, 육아, 책임, 관계 등과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다(Walsh, 2009). 또 반려동물은 사람들과 정서적 상호작용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애착 형성에 적합하며 어린 아동들도 반려동물에게 애착 행동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Melson & Fogel, 1989). 또한 아동기 외상을 반려동물 애착이 조절을 한다는 연구가 있으며(김진희, 2022) 청소년 연구에서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감정을 드러내는 안전한 배출구 역할을 하며 친구와의 접촉 부족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때 정서적 지원을 제공했다는 결과가 있다(Muldoon et al., 2019). 코로나19의 유행 기간에 반려동물은 청소년들이 일관된 일상을 유지하도록 도왔고 청소년 행동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다(Nieforth & O’Haire, 2020).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은 사춘기 초기에 가장 강하며 나이에 따라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어 성장 과정에 있는 아동에게 반려동물과 애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목서윤, 2022).

애착과 관련하여 개는 인간의 오랜 친구로 인간과 1만 4천 년 전부터 같이 살기 시작했다. 개와 사람과의 오랜 친밀감은 “*Canis lupus familiaris*” 즉, 길들여진 개(domestic dog)라는 뜻의 학명에서도 알 수 있다(김소희, 2010). 개는 원래 늑대였는데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추위 등 이상 기후로 인해 굶주린 늑대들이 사람들 거주지 주변에 버려진 음식들을 주워 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적응하려고 스스로 길들여져 새로운 동물인 개가 되었다. 따라서 개는 스스로 사람에게 다가와 관계를 형성하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동물로 볼 수 있다.

개는 결정적 시기에 사람을 자연스레 우두머리로 인식하게 되면 이후 애착 대상으로 여겨 사람과 감정을 공유하며 사람의 삶에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주인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심과 애정 욕구, 함께 하고 싶은 관계 욕구 등 애착과 관련된 욕구들을 표현한다. 이러한 개의 순수한 애착 행동은 기쁨과 웃음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며 개와의 신체 접촉은 심리적 안정을 주어 치유적일 수 있다(Rujoiu & Rujoiu,

2014; Sable, 2013; Walsh, 2009).

Ⅲ. 개의 상징성

1. 충성심의 상징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에게 안기며 재롱을 부리고 혼내도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는 한결같은 애착 행동 때문이다. 사람들이 개를 학대하고 유기해도 개는 날카로운 이빨로 주인을 물지 않으며 버림에 대해 보복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버린 주인을 찾으며 그를 위해 희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헌신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은 개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충성심은 개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다.

우리나라 고려 시대의 설화 중에 ‘불에서 주인을 구한 의견(義犬)’ 이야기는 개의 충성심에 관련된 매우 유명한 이야기이다. 옛날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도중 숲에 취해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가 물고 있던 담뱃대에서 불똥이 떨어져 잔디에 불이 붙었다. 개는 “멍멍” 짖으며 주인을 깨웠으나 꼼짝도 하지 않자 근처에 있는 도랑물에 몸을 적서 뒹굴며 불을 껐다. 주인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주인이 있던 주변만 불이 타지 않았고 그 옆에 개가 시커멓게 타서 죽어 있었다. 이를 본 주인이 개의 충성심에 감동하여 개의 무덤을 만들고 나무를 잘라 비석을 만들어 주었다. 이 나무를 ‘개의 나무’란 뜻에서 “개 오(葵)”, “나무 수(樹)”를 써 오수라고 불렀고 그 뒤로 마을 이름도 ‘오수’라 부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전북 임실군 둔남면 오수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지금도 마을 입구에 애견비가 세워져 있다.

이처럼 개는 헌신하는 충복의 상징으로 특히 조선 시대 민화 등에서 개의 충성심이 잘 묘사되어 있다. 조선 시대 제1 대왕 태조 이성계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반역을 경계하고 충성심을 강조해서 개가 그려진 그림을 장려했다(리영순, 2006). 그중 이암의 ‘화조구자도’(花鳥狗子圖)와 모견도(母犬圖), 김두량의 흑구도(黑狗圖) 등 나무 아래에 있는 개 그림이 유명한데 이유는, 개는 ‘戌’(개 술)이고 나무는 ‘樹’(나무 수)여서 戌은 戌(지킬 수)와 음이 같을 뿐만 아니라 樹(나무 수)와도 음이 같아 동일시되기 때문이었다. 즉 ‘수수수수(戌戌樹守)’로 도둑맞지 않게 잘 지킨다는 뜻이 되어 나무 아래에 그려진 개의 그림은 집을 잘 지켜 도둑의 침입을 막는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으므로 나무 밑의 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의 상징이 되었다(박호원 외, 2001). 또 우리 조상들은 숯불을 담아놓는 화로에도 개를 그려 넣었는데 집안

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지키라는 의미였다(박영수, 2005).

개 중 특히 삽살개는 집안에 도둑이 드는 것을 막아주고 곡식과 물건을 지켜준다고 하여 광 문이나 대문에 붙였는데 이를 문배도(門排圖)라고 불렀다. 주인을 지키는 개의 충성심은 귀한 것을 지키는 방법의 상징이 되었고 재물이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나쁜 귀신이나 질병을 물리치는 수호신의 성격마저 지니게 되었다.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개 모양의 빨잔 역시 신의 모습을 한 개를 조각하여 사람을 잘 지켜주는 수호신의 상징으로 삼기 위함이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이로쿼족의 부장품 속에서도 개의 모습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주인을 향한 개의 사랑과 충절이 무덤까지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개가 묘에서 출토될 때는 저승에서도 일상이 재현되기를 바라는 의미와 벽사(지킴)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내포한다(민병훈, 2019). 고구려 각저총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진돗개와 닭은 누렁이 역시 뚜렷한 눈빛으로 고분의 주인을 지키는 수호견으로 볼 수 있다. 고대 마야 문명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의 동반자 역할로 키우던 개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페르시아 역시 양 떼를 지키는 파수꾼이자 인간의 보호자로서 개를 숭배했다. 중국의 전설 속의 푸 도그(foo dog)는 인간과 인간의 재산을 지키며 귀신을 몰아내는 수호신으로 등장한다.

또 호메로스(Homeros)의 ‘오디세이’에는 오랜 방랑 끝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오디세우스가 유일하게 자기를 알아보는 애견 ‘아르고스’의 충성심에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르고스는 오디세우스를 본 후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김소희, 2010). 우리나라 속담 중에 ‘개는 사흘만 기르면 주인을 알아본다’와 ‘사람이 개를 버려도 개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온몸을 다해 주인에게 헌신하는 개의 충성심을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주인을 위한 개의 충성심은 개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개는 무리를 지어 활동하는데 위계질서가 엄격해서 서열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싸워서 우열을 가리고, 우열의 순위가 정해지면 복종하고 협동한다. 따라서 개가 사람을 자신보다 높은 서열로 인정하게 되면 사람에게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특정 사람을 절대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끝까지 충성하게 된다. 그러나 개의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은 길들여짐의 다른 모습으로 습관적이고 맹목적이며 주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다.

2. 치유의 상징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와 결부된 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남으로 병에서 치유됨을 상징한다. 수렵의 신과 전쟁의 신, 영웅, 치료의 신 노텐의 뒤를 개가 따르고 있으며 켈

트족에게서도 개는 상징적으로 치료의 강과 연결된다(Cooper, 1978/2012).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지크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환자를 치료할 때 ‘조피’라는 개를 활용했다. 그는 느긋한 성격의 조피가 낯선 곳에 도착한 환자들 특히 어린이나 사춘기 청소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어 치료과정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아냈다. 실제 그는 환자의 정신 상태를 파악할 때 조피의 의견을 많이 참작했다고 고백했는데 조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환자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지려 했기 때문에 조피와 환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나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통해 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치료했다고 한다(김소희, 2010).

1960년대 정신과 의사였던 Levinson은 대기실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아동들이 개와 놀면서 치료를 받지 않고도 저절로 회복되는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였다(Levinson, 1972). 이후 그는 반려동물의 치료 효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여러 영역에서 치료견 매개 프로그램을 활발히 시행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며 전통적인 치료에 대한 부수적 필요로 동물 매개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우진경, 2013). 이처럼 살아있고 감정이 있으며 따뜻한 체온이 있는 동물과 생활이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내담자의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발달과 적응력을 향상하게 시킬 수 있다(우진경, 2013).

뇌 과학 및 신경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의 뇌는 크게 신피질, 변연계, 뇌간 등의 세 부위로 나뉘는데 신피질은 이성을, 변연계는 감정을 주관하고 뇌간은 호흡, 혈압, 체온, 동공반사 같은 생리적 자율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포유동물의 뇌를 연구한 결과 개는 신피질의 크기는 좀 작지만, 변연계는 아주 잘 발달해 있어 이성적인 면에서는 인간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감정을 느끼는 능력 면에서는 인간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물학자들 역시 개는 인간처럼 성숙한 변연계를 가졌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는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김소희, 2010).

더구나 개는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 또한 재빨리 이해한다. 그 이유는 사람의 미세한 몸의 기울기나 표정을 눈으로 보고 반응하기 때문이다. 개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훈련받은 심리 치료견은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단혔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김소희, 2010). 심리치료 견뿐만 아니라 암세포 탐지견과 발작 경고견도 있다. 발작 경고견은 주인과 24시간 생활하면서 발작이 일어나기 직전에 짓거나 발로 몸을 쳐서 신호하는 역할을 한다. 개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냄새로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치유과정에서 우리의 이성은 본능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 본능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성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를 치유적 행동으로 이끈다. 우리 내면의 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본능적으로 알아낸다. 또 우리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자를 직관적으로 알아내며 치유과정에서

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모래 상자에서 개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적 어려움을 치유하는 내담자들을 종종 만난다. 20대 여성인 내담자 A는 모래 상자 안에 모래가 깔린 작은 놀이터를 꾸몄다. 그런 후 놀이터 밑에 여자아이를 앉혀놓고 옆에 큰 개를 놓고 나서 “개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해요.”라고 말했다. 그 당시 그녀는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하고 아빠의 온전한 돌봄 속에 자라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먼 도시로 왔다. 처음으로 아빠와 떨어져 혼자서 살아가는 삶이 매우 불안했던 그녀는 모래 상자에 개를 놓음으로써 아빠를 포기하는 대신 그녀 내면의 개의 본능적 에너지와 만나게 되었고 이후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 시작했다.

또 중2 여학생이었던 내담자 B는 모래 상자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실을 꾸민 후 거실 구석에는 강아지들과 마주 보고 있는 자신을 놓았다. 이 강아지들을 유심히 보던 아이는 가족 안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냈고, 상담이 끝난 후 엄마를 졸라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가족관계에서의 애착에 대한 상처를 개와의 재애착을 통해 치유하고자 개를 실제로 키운 경우로 볼 수 있다.

3. 무의식의 안내자

개는 예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동물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개는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로 표현되는데 사람들은 개가 이승에서 인간의 친구여서 사후에도 죽은 자와 저승 신들 간의 중개자로 통역의 역할을 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는 현세와 내세의 경계를 지키는 수문장, 통로의 수호자, 죽은 자의 수행인,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동물로 인식되었다(Cooper, 1978/2012).

그리스 신화에서도 세 개의 머리를 가진 개인 케르베로스는 하데스(Hades)가 지배하는 지하 세계의 입구를 지키는 경비견이다. 이 개는 저승의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죽은 자의 혼이 지하 세계에 도착하면 그대로 통과시키지만 도망치려고 하면 달려가 잡아 먹어버린다고 한다(민병훈, 2019).

이런 인식으로 개는 죽은 자를 저승으로 인도하고 때로는 죽은 자들의 저승길에 동행하도록 무덤 앞에서 희생되기도 했다. 마야인들 역시 주인이 죽으면 기르던 개를 함께 묻어서 저승의 길잡이로 동행하게 했다. 몽골에서도 언제나 개와 말을 그 주인과 같이 묻었다. 또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개가 자신을 저승으로 인도해 갈 수 있도록 개에게 빵이나 고기를 주어야 했다. 개는 임종 장소에 나타나며 장례 행렬에도 뒤따랐다. 또 임신한 여자가 죽으면 개 두 마리를 무덤에 두어 한 마리는 여자를, 한 마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개를

영혼의 안내자로 믿었기 때문이었다(Cooper, 1978/2012). 아프리카 여러 곳에서도 같은 이유로 사람들의 무덤에서 개를 희생시켰다. 또 기원전 1000년경으로 추정되는 나일강 주변의 지하 묘지 속에서는 개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들이 주인 옆에 함께 묻혀 있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김소희, 2010). 고대 이집트인들 역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묻을 때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죽은 뒤의 세계로 가는 과정을 그린 ‘사자의 서’라는 두루마리를 함께 넣었다. ‘사자의 서’에는 죽은 사람은 저승 세계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서 생전에 좋은 일을 했는지 나쁜 일을 했는지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검은 머리 신인 아누비스가 죽은 자의 양심을 저울에 달았다. 아누비스는 장례 의식을 주재하고 죽은 자들을 오시리스의 왕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죽음의 신으로서 ‘들개 모습을 가진 자’라는 뜻으로 검은색의 커다란 들개 형상이거나 인간의 몸에 긴 귀와 끝이 뾰족한 주둥이를 가진 모습을 하고 있다(김소희, 2010). 조로아스터교의 장의 과정에서 개는 시신의 육탈을 돕기도 하지만 시신이 집을 떠나는 과정에서 죽음을 확인하는 역할과 영혼이 심판받는 장소로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조로아스터교의 장의 절차에 있어서 개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인 이로쿼이족은 특히 하얀 개를 신의 중재자로 여겨 신성시했는데 영화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에서도 하얀 개가 나온다. 외롭게 지내던 12살 주인공 제시의 옆집에 레슬리라는 여학생이 전학해 오는데 이 여학생은 달리기도 잘하고 뛰어난 표현력으로 작문도 잘하는 소녀이다. 둘이서 친해지면서 이들은 숲 근처 나무에 걸린 그네 밧줄을 타고 숲으로 건너간다. 그 숲을 그들만의 아지트로 만들고 숲 이름을 테라비시아라고 이름 붙인 후 자신들의 왕국으로 삼는다. 이 숲의 왕국에서는 수시로 어둠의 제왕이 죄 없는 국민을 가두고 시시때때로 다람 요괴와 거인 괴물을 보내 약한 국민을 공격하는 등 상상 속의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기에서 무의식을 상징하는 숲으로 두 사람을 안내하는 동물이 하얀 강아지이다(Cuspo, 2007).

우리나라의 무속 신화, 저승 설화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환생할 때 저승에서 이승으로 오는 길을 안내해 주는 하얀 강아지가 있다. 제주도 무속 설화 ‘차사분풀이’ 편에서도 하얀 개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는 동물로 등장하고 있다(조운찬, 2005). 또 개화 바위 유래라는 설화에서 개는 하늘에서 현실 세계로 아이를 데려온 안내자의 의미가 있다(김치순, 2011). 견우와 직녀가 묘사된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에도 소를 데리고 온 견우와 검은 개를 데리고 온 직녀가 묘사되어 있어 견우직녀라는 설화에서도 개가 저승에서의 만남을 주관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동물로서 영혼 세계에서도 충실한 안내자이자 친구로 인식되었다(박호원 외, 2001).

대부분 신화와 종교에서 죽음의 땅으로 묘사하는 곳은 인간 정신의 무의식을 상징하며 위에서 예로 든 신화, 전설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개는 무의식과 묘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인간 정신의 치유 그리고 더 나아가 개성화를 위해서 때로는 죽음에 비유될 수 있는 내면의 깊은 무의식으로 하강을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곳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본능 즉 ‘개’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4. 본능과 직관의 상징

본능은 원형과 뿌리를 같이 한다고 본다(정인석, 2008). 따라서 인간의 원형은 동물의 본능적 행위까지 연결된다. 인간에게 있어 언제나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나는 형상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본능과 원형의 양식이 있다(이부영, 1978). 본능과 원형 측면은 같은 의미를 각각 다른 형태로 표출할 수 있다. 본능은 때로 이성과 지성의 분석 없이 사물의 본질을 바로 알아보는 능력 즉 직관력을 갖는다. 많은 동물이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개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으로 사물을 분석하고 외양을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

개는 본능과 직관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영적 세계와 관련이 있는 동물로 상징되는데 그 이유는 개가 가진 초능력에 가까운 후각과 청각 때문이다. 개는 시각보다는 후각 즉, 코로 냄새를 알아챈 후 방향을 잡으며 한번 갔던 길을 잃지 않고 잘 찾아간다. 우리나라에 ‘하얀 마음 백구’라는 책에 실제로 집을 찾아온 개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진도군에 살고 있던 박 할머니가 강아지 때부터 키우던 5살짜리 백구를 대전에 사는 한 애견가에게 팔았는데 주인을 그리워하던 백구가 팔려 간 지 7개월 만에 목줄을 끊고 빼만 양상한 채 홀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되돌아왔다는 이야기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일을 흔하게 경험할 수 있다. 우리 강아지도 들어서 산책하다가 내가 보이지 않거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떻게든 내가 있는 곳으로 항상 되돌아온다. 이렇듯 개가 되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개가 이성이 아닌 후각과 청각 등의 본능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개에게 어떤 신령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 옛날 사람들은 깜깜한 밤중에 물체의 움직임을 잘 살필 수 있으며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짖는 개를 보고 개가 신과 대화한다고 생각해서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 신라 시대 토우에는 개 모양이 많은데 개가 사악한 귀신을 물리쳐 평안을 가져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김소희, 2010). 또 ‘신구도(神狗圖)’라는 그림에는 귀신들이 무서움을 느끼도록 개의 눈을 세 개나 그려 넣었는데 눈이 셋 달린 개는 삼재를 쫓는다고 생각해서 신구도를 부적으로 즐겨 사용했다(박영수, 2005). 삼국사기에는 유화부인이 다섯 되 크기의 알을 낳았는데 금와왕이 개와 돼지에 게 주어도 먹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삼국유사에는 백제 멸망(660)에 앞서 사비성의 개들이 왕궁을 향해 슬피 울었다고 쓰여 있다(박호원 외, 2001). 신라 성덕왕 때엔 개가 궁성의 고누에 올라가 삼 일간을 울었는데 그 후에 왕이 죽었으며 의자왕 때에도 개가 사비성

강독에 이르러 왕궁을 보고 짓어댄 후 백제가 멸망했다고 쓰인 기록이 있다(박호원 외, 2001).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아이누족은 개에게 귀신을 식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개가 귀신의 존재를 알아차린다고 믿었다.

우리나라의 삽살이는 신라 왕실에서 기른 개로 귀신을 쫓는 개로 알려져 있다. 삽살이의 긴 털이 사자 같기처럼 힘찬 기운을 풍기는데 김유신 장군이 용맹한 삽살이를 군견으로 데리고 다녔다고 한다. 삽살개는 ‘삽살개 있는 곳에 귀신도 얼씬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삽살이라는 이름 자체가 귀신(액운)을 쫓는 개라는 뜻이다. 특별히 흰 개는 전염병, 병 도깨비, 잡귀를 물리치는 능력뿐 아니라 집안에 좋은 일이 있게 하고 미리 재난을 경고하고 예방해 준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개의 신령한 힘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일도 있는데 만약 집에서 기르던 개가 슬피 울면 집안에 초상이 난다고 하여 개를 팔아버렸고 개가 이유 없이 땅을 파면 무덤을 파는 암사라 하여 개를 없애고 집안이 무사하기를 천지신명께 빌고 근신하면서 불행에 대비했다(박호원 외, 2001).

이처럼 본능은 우리의 둔화된 본능적인 설팡이나 직관을 나타내며(Boa, 1988/2004), 본능은 우리에게 치유 받도록 도와줄 사람을 선택하게 하고 치료에 필요한 피겨를 선택하게 한다. 종종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담자가 “치료실에 올 때 이렇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피겨를 고르고 만들고 나면 전혀 다른 상자가 만들어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때 내담자의 손을 움직인 것은 내담자의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며 직관이다. 본능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으나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본능적 직관을 가지게 된 사람은 동물과 같이 예민하고 기민하며 자신 있게 삶을 살아갈 힘을 갖게 된다.

5. 모래놀이치료 사례의 개

위에서 언급한 개의 상징성은 모래상자에서도 나타난다. 다음은 개의 상징성이 잘 나타난 사례에 관한 기술이다. 내담자 C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외모에만 집중하고 낮 놓는 시간이 많았다. 내담자 C의 모는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내담자의 친조모가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이를 잘 키워 친조모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따라서 내담자 C에게 많은 기대를 했으며 내담자 C는 어머니의 기대 이상으로 공부를 매우 잘 했다. 더구나 친구 관계도 좋아 어머니는 내담자 C를 볼 때마다 뿌듯했다. 내담자 C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어 크게 성공시키고 싶었던 어머니는 내담자 C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큰 도시로 무리하게 이사를 감행했고 그곳에서 내담자 C는 적응하지 못했다.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지 못했고 결국 왕따가 되었다. 학교 성적 역시 점점 하위권으로 떨어졌고 의외 당시는 학교 가기 싫다면서 자퇴를 하겠다고 어머니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내담자 C를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내담자 C는 친구들

이 수준이 낮아서 어울릴 마음이 없다고 이유를 대답했다.

내담자 C의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에게 징징대는 내담자 C가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여러 번 혼내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그럴수록 내담자 C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피했고 아버지에게 할 말이 있을 때는 어머니에게 대신해 달라고 졸랐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아버지는 내담자 C를 쫓아내던지 체벌을 해서라도 정신을 고쳐야겠다고 베풀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담자 C의 상담을 원치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담자 C의 행동은 의지가 약해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상담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불같이 화를 냈으며 바로 상담실로 와서 내담자 C를 데리고 갔다. 그때가 5회기 상담 중이었다. 실제로 내담자는 또래 관계에서도 의사 표현이 힘들었고 어떤 것도 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으며 힘든 일이 있으면 시도조차 안 하거나 어머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비난받거나 잘못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댔다. 어머니가 그를 상담에 의뢰한 이유도 그것이었다.

1회기에서 내담자 C는 모래를 상자 가운데로 모아 섬을 만들었다. 왼쪽 중앙에 큰 집을 놓은 후 으리으리하게 큰 저택이며 자신은 이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집 주변에 여러 대의 탱크와 전투기를 놓은 후 누가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무기이며 나무 뒤의 전투기는 일부러 숨겨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마치 누군가의 침입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았다. 섬 안의 동그란 호수에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는데 내담자 C는 집을 지키다가 그 배 안에서 누워 있다고 말했다. 큰 집은 혼자 살기에는 너무 커 보였고 주변에 놓은 탱크와 전투기는 너무도 삭막해 보였다.

섬 특히 바다에 나타난 섬은 물에 의해 완전히 둘러싸인 대지의 한 부분으로 (Turner, 2005/2009) 고립된 자아를 상징하며 피난처 혹은 낙원을 상징한다(Fontana, 1994/1999). 또 섬은 창조와 탄생의 장소이자 종종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Ammann, 2001/2009). 호수 안의 작은 배에서 쉬고 있다는 내담자 C의 말에서 자궁 안의 양수에 떠 있는 태아가 연상되었다. 내담자 C의 자아는 심리적으로 초기 상처가 없는 모의 자궁으로 퇴행한 것으로 보였다. 집 주변에 배치된 탱크와 전투기는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방어였다. 쉽게 들어올 수 없는 섬에 이런 철통같은 방어는 두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아이의 삶에서 침범적인 경험이 심각해서 외부인의 개입에 대한 방어적인 측면과 재탄생을 위한 테메노스(Temenos)적인 공간을 지키기 위한 경비적인 측면이다. Neumann은 의식적인 자각의 모든 확장에는 초기 발달과정을 심리적으로 되짚어 보는 것이 포함되며 각각의 내적 변형을 거침으로써 자아는 죽고, 다시 자기와의 더 많은 의식적인 관계 속에서 재탄생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다(1973). 따라서 이 회기에서 내담자 C의 자아는 치유를 위해 초기 발달의 단계로 되돌아간 것으로 보였다.

2회기에서 내담자 C는 큰 집을 놓은 후 모래를 손으로 쓸어내리면서 “여기는 집 앞 마

당이에요. 잔디가 깔려 있고 개는 잔디밭에서 뛰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래상자 위에 개를 놓지는 않았다. 모래는 지구를 형성하는 물질이며 어머니 대자연의 땅이다(장미경, 2017). 또 정화, 치유, 신성함을 상징한다(Cooper, 1978/2012). 내담자 C는 부드러운 모래를 오랫동안 만졌는데 대지의 어머니인 근원적인 모성 원형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내담자 C는 모래를 만지면서 본능적으로 개를 연상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개는 이제 무의식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한 내담자 C의 내면의 치유적인 에너지로 볼 수 있다.



Fig 1. 내담자 C의 3회기 모래 장면 (부제: 행복한 가정)

3회기 모래상자를 보면 이 집에는 부모와 결혼한 아들이 같이 살고 있다. 부모는 매우 부자여서 집도 크고 돈도 많다. 부는 회사 사장이고 아들은 부사장이다. 이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모와 아들 부부는 아무 때나 해외여행을 가고 좋은 차를 타고 속도를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닌다. 내담자 C는 모래상자를 설명한 후 갑자기 차를 자세히 보더니 “어? 차가 모래에 빠져 있네요?”라고 말했다.

이 집에는 결혼했지만 ‘아기’라고 불리는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은 부자인 부모덕에 일하지 않아도 된다. 또 결혼했음에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 의존해서 놀 생각만 하고 있다. 자신의 나이에 맞지 않는 의식 수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내담자 C는 어머니와 아주 밀착되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완전히 어머니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독립성 즉 자신의 본성을 발달시키지 못한 상태였다. 자아를 상징하는 차가 모래에 빠져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Neumann에 따르면 초기 모-아 관계에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이 시기에 어머니가 아이의 무의식적 공격

성을 담아주며 따뜻하고 영향이 풍부한 음식을 주고 사랑해주며 아이와 항상 같이 있을 때 아이는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를 경험하게 되고 안전하고 믿을만한 환경에 대한 신뢰감이 발달하며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1973). 초기의 견고한 모-아 관계는 아이가 평생 발생하는 무의식 재료를 유익하게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서적 기술과 성격을 발달시키도록 도와준다(Turner, 2005/2009). 내담자 C는 재애착을 위해 자신의 본능 영역과 반드시 접촉해야 했다. 이 회기의 모래상자에서 강아지는 집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뛰놀고 있다. 하얀 개로 동그란 눈에 몹시 귀여운 모습이다. 그러나 자아가 발달하려면 무의식적인 어머니 에너지로부터 분리를 해야 한다는 Neumann의 말처럼 내담자 C는 하얀 강아지의 안내를 받아 모로 상징되는 집에서 나와야 한다(1973).



Fig 2. 내담자 C의 4회기 모래 장면 (부제: 00의 랜드마크)

왼쪽 상단의 회색 건물은 내담자 C 소유의 랜드마크(landmark)이다. 매우 높은 건물이다. 그 앞에 놓여 있는 회색 아치형 문을 통해 들어가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펼쳐진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과 오래된 유적들, 그리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곳과 작은 호수도 있다. 무서운 귀신이 나오는 성이 있으며 큰 나무로 이루어진 숲도 있다. 내담자 C는 이곳을 설명하면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는 이 랜드마크 제일 위층에서 이곳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음.. 여기가 사실은 던전이에요.”라고 말했다. 이곳 랜드마크는 사람들이 즐기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지옥이다. 아무도 없고 분위기는 매우 정적이다. 내담자 C의 무의식 에너지가 정체되어 있다. 중앙 위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입구 가까이 놓여 있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내담자 C의 욕구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아야 볼 수 있다. 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하트를 안고 있는 두 마리의 강아지는 매우 밀착되어 있다. 실제 내담자 C와 어머니의 의존적인 관계로 보인다. 의자에 앉아 있는 두 마리

의 꿈은 정신이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간 대상으로 보인다. 중간 대상은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분리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왼쪽 중앙에 선글라스를 낀 채 비키니 의자에 누워있는 꿈은 고개를 돌리고 딴 곳을 보고 있어 독립에 대해 인식은 했으나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남성성을 상징하는 에펠탑은 숲 뒤에 가려져 있다. 자유를 상징하는 자유 여신상도 숲 뒤에 가려져 있다. 숲은 미지의 위험과 암흑이 지배하는 곳으로 죽음의 영역이다(Cooper, 1978/2012). 모와의 심리적 의존에서 분리하는 죽음을 불사해야 할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내담자 C의 랜드마크가 서 있는 왼쪽 상단에서 새롭고 독립적인 남성적 에너지가 들어와야 한다.



Fig 3. 내담자 C의 5회기 모래 장면 (부제: 한 여름 밤의 꿈)

내담자 C는 “이곳은 마을이고 광장에서 뻬에로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마을의 축젯날인데. 밤하늘에서 폭죽이 터지고 모두 즐거워해요. 무슨 축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우편함은 편지를 넣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도착해요.”라고 말했다.

Dora Kalff는 모-아의 관계에서 충분한 안정감이 형성되면 아이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에서 분리되어 외부세상을 향한다고 설명했다(Turner, 2005/2009). 이 회기에서 문 앞을 지키는 개들은 두 마리이며 색깔은 대극적이고, 크기도 크고, 표정도 뚜렷하다. 의식의 출현은 대립하는 위치에서 서로 직면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더 이상 어머니의 마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양극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두 마리 개중 검은색 개는 무의식의 어머니 에너지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개 뒤편으로는 한 여름밤의 꿈 처럼 환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을의 광장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면 피겨들이 큰 원을 그리며 모래상자 중심 가까이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원은 전체성의 상징이다. 전체성은 아이의 무의식 속에서 중심이 굳건해지면 이렇게 상징을 통해 드러난다(Kalff, 2000/2012). 정신의 중심화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자아 발달은 그다음

단계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에너지와 자아가 재연결되면 아동의 정서가 균형을 잡는 경향이 있고 단절되었던 측면들이 통합되며 그 결과로서 일상생활에 질서가 잡힌다 (장미경, 2017). 축제는 자기(self)의 출현에 대한 자축연이다. 입구에 앉은 두 마리 개는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 이들이 바깥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내담자 C의 자아가 내면세계에서 눈을 돌려 외부 세계와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회기를 끝으로 부에 의해 상담이 강제 종결되었다. 모래 상자를 정리하다 내담자 C가 놓은 우체통의 의미가 궁금해졌다. 언젠가는 반드시 도착한다는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 아마도 직관적으로 종결을 감지한 내담자 C는 미래의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가 도착하는 언젠가에 자신을 상징하는 개와 함께 다시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IV. 결 론

개는 전통적으로 그리고 많은 문화에서 본능과 직관의 상징이자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영매의 상징이다. 또한 치유를 가져오는 동물이며 인간에게 끊임없는 충성심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모래놀이치료 사례에서도 개의 이러한 상징성은 잘 드러났다. 독립을 방해할 정도로 어머니와의 지나친 유대는 근본적으로는 애착 외상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극복하고 독립해야 하는 콤플렉스이다. 그 여정에서 치유의 상징이자 이승에서 저승 즉 현재의 미성숙한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발달과 통찰로 나아가는 길에 일시적으로 개는 모성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쟁취하는 과정의 반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예시한 사례는 발달 단계에 적합하게 어머니에게서 심리적 독립을 하지 못했던 청소년 내담자 C에 관한 사례로서 이 내담자는 모래상자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내면의 ‘개’의 안내를 받아 무의식으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내담자 C는 모래놀이치료에서 자신의 지나치게 ‘긍정적’ 모성 콤플렉스에 의해 어머니와 애착과 유대로부터 하나의 개인으로서 그리고 남성으로 독립하는 과업을 다루었다.

이 사례는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면의 본능이자 직관이며 다른 세계(즉 성숙한 발달 단계)로 인도하는 ‘영매’의 상징인 개의 안내로 독립된 성인 남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내담자에게 모래놀이치료 경험은 성인 남자로의 이니시에이션 즉 상징적인 성인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나선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면의 ‘개’의 안내를 받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애착 외상과 개의 상징성이 모래놀이치료의 사례를 통해 나타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남자 고등학생 한 명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성별, 나이 등 대상을 다양화가 필요하다.

둘째, 짧은 회기로 인해 일상에서 내담자의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좀 더 긴 회기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애착 외상에서 독립으로 나아가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여정이 개의 상징을 통해 잘 나타난 사례로 판단되며 짧은 회기로 인해 이후 심리적 여정은 내담자의 과제로 남겨놓아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 김세영, 박형인 (2018). 반려동물이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을 통해 행복에 미치는 효과: 마음챙김에 의해 조절된 매개모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3(4), 1001-1018.
- 김소희 (2010). 모든 개는 다르다: 시간 속에 숨은 51가지 개 이야기. 서울: 페티앙북스.
- 김진희 (2022). 대학생의 아동기 외상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반려동물 애착의 조절 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치순 (2011년 10월 25일). 개화바위 유래 - 양산시 원동면. *고향 이야기*.
<https://blog.naver.com/kcs022/140142858022>. 2022년 10월 30일 검색.
- 리영순 (2006).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 서울: 훈민.
- 목서윤 (2022). 인간과 동물의 유대에 관한 연구 현황과 개선 방향.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병훈 (2019). 유라시아의 십이지 문화. 과천: 진인진.
- 박영수 (2005). 유물 속의 동물 상징 이야기. 서울: 내일 아침.
- 박호원, 정연학, 최은수, 천진기, & 홍순석 (2001). *전통문화와 상징 1*. 용인: 강남대학교 출판부.
- 우진경 (2013).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가 지적장애 성인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동서보완의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부영 (1978). 분석심리학. 서울: 일조각
- 장미경 (2017). 분석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 서울: 학지사.
- 정민지 (2019). 성인의 반려동물 상실 경험과 복합 비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석 (2008). 의식과 무의식의 대화. 서울: 대왕사.
- 조운찬 (2005년 12월 30일) 민속에 나타난 개, 재앙 막고 행복 지키는 충복.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0512301708511>. 2022년 11월 2일 검색.
- Amiot, C., Bastian, B., & Martens, P. (2016). People and companion animals: It takes two to tango. *BioScience*, 66(7), 552-560.
- Ammann, R. (2001). *Das sandspiel: Der schöpferische Weg der Persönlichkeitsentwicklung*. Zürich: Walter.
- 이유경 (2009). (역). 융 심리학적 모래놀이치료(인격 발달의 창조적 방법). 서울: 분석심리학연구소.
- Boa, F. (1988). *The way of the dream*. Toronto: Windrose Films. 박현순, 이창인 (2004). (역). 융학 파의 꿈 해석. 서울: 학지사.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
- Brown, B. H., Richards, H. C., & Wilson, C. A. (1996). Pet bonding and pet berea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5), 505-509
- Cuspo, G. (2007). *비밀의 숲 테라비시아* [영화]. 월트 디즈니 픽처스.
- Cooper, J. C. (1978).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NY: Thames & Hudson. 이윤기 (2012). (역). 그림으로 보는 세계문화 상징사전. 서울: 까치글방.
- Field, N., Orsini, L., Gavish, R., & Packman, W. (2009). Role of attachment in response to pet loss. *Death Studies*, 33(4), 334-355.
- Fontana, D. (1994). *The secret language of symbols : A visual key to symbols and their meanings*.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최승자 (1999). (역). 상징의 비밀: 상징과 그 의미를 푸는 시각적 열쇠. 서울: 문학동네.
- Hosey, G., Birke, L., Shaw, W. S., & Melfi, V. (2018), Measuring the strength of Human - Animal bonds in zoos. *Anthrozoö*, 31(3), 273-281.
- Jung, C. G. (1968). *Man and his symbols*. NY: Dell. 이윤기 (2009). (역). 인간과 상징. 파주: 열린 책들.
- Kalff, D. M. (2000). *Sandspiel : Seine therapeutische wirkung auf die psyche (4. Auflage.)*. München: Ernst Reinhardt Verlag. 이보섭 (2012). (역). 도라칼프의 모래놀이(융심리학적 치유법). 서울: 학지사.
- Kalsched, D. (2013). *Trauma and the Soul*. London: Routledge.
- Kurdek, L. A. (2009). Pet dogs as attachment figures for adult own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439.

- Levinson, B. M. (1972). *Pets and Human Development*. Springfield, Ill: Thomas.
- Melson, G. F., & Fogel, A. F. (1989). Children's ideas about animal young and their care: A reassess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nurturance. *Anthrozoös*, 2(4), 65-273.
- Muldoon, J. C., Williams, J. M., & Currie, C. (2019), Differences in boys' and girls' attachment to pets in early-mid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of Psychology*, 62, 50-58.
- Nieforth, L. O., & O'Haire, M. E. (2020). The role of pets in managing uncertainty from COVID-19.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S1), S245.
- Neumann, E. (1973). *The child: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Nascent Personality*(R. Manheim, Trans.). London, UK: Maresfield Library.
- Rujoiu, O., & Rujoiu, V. (2014). Pet loss and human emotion: Romanian students' reflections o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9(5), 474-483.
- Sable, P. (2013). The pet connection: An attachment perspectiv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1(1), 93-99.
- Sharkin, B. S., & Knox, D. (2003). Pet los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psychologis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414.
- Turner, B. A. (2005).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Illinois: Temenos Press. 김태련, 강우선, 김도연, 김은정, 김현정, 박랑규, 방희정, 신문자, 신민섭, 이계원, 이규미, 이정숙, 이종숙, 장은진, 조성원, 조숙자 (2009). (공역). *모래놀이치료 핸드북*. 서울: 학지사.
- Walsh, F. (2009). Human-animal bonds II: The role of pets in family 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48(4) 481-499.
- Wells, D. L. (2009). The effects of animals on huma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65(3), 523-543.
- Zilcha-Mano, S., Mikulincer, M., & Shaver, P. R. (2012). Pets as safe havens and secure bases: The moderating role of pe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5), 571-580.

투고일 : 2022. 09. 26

수정일 : 2022. 11. 25

게재확정일 : 2022. 11. 27

Dog: A Companion on the Journey to Independence Beyond Attachment Trauma

Misung Yoo^{*}

<Abstract>

The ‘Animal symbol’ symbolizes the primitive and instinctive nature of human beings, and has been psychologically important since ancient times. Among many animals, dogs, in particular, were originally wolves, but were the first to be domesticated by humans. It is an animal that people attach to and regard as a family member because it is absolutely obedient to and dependent on humans when they perceive humans as the leader. However, in most countries, the dog is an animal that has been recognized not only as a loyal, home-keeper, but also as a guide between the dead and the underworld and as a human companion. The reason is that although dogs have been domesticated and become new animals, they still have the instinctive characteristics of wolves. Infants in the early stages of their lives also have a time when they rely entirely on their mothers, similar to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ated dogs. However, when a healthy attachment is formed, the baby is psychologically separated from the mother and self-development begins toward independence. However, if psychological independence is not achieved for some reason, similar to a domesticated dog, they become completely dependent on their mother and are swallowed up by their maternal mother, and they may become stuck in childhood dependence, causing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is case, our reason, guided by the instinctive energy of our inner dog, begins a healing journey towards independence. In this paper, among the many symbols of dogs, the dog as a symbol of loyalty, the dog as a healing animal, the dog as a guide to the unconscious, and the dog as a symbol of instinct and intuition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symbolic meaning of the dog discussed above was confirmed through the case where a high school client who was psychologically dependent on his mother while having sandplay therapy started a healing journey by using a dog symbolically to achieve attachment and independence.

Key words : symbol, dog, sandpaly therapy, attachment, independent

* Director of Jeonju Mara Child and Youth Counseling Center (tkfk9081685@naver.com)



Copyright ©2022, Korean Society for Sandplay Therap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 Introduction

All things existing in the universe have their own symbolic meanings. Among them, animals symbolize the primitive and instinctive nature of humans, and for this reason, regardless of age, they have rich symbolic meanings in religion, art, and folktales. Jung regarded animal symbols as generally belonging to the unconscious or as manifestations of unconscious libido that informs suppressed instincts (1968/2009). Donald Kalsched stated that the self of a person who experienced attachment trauma in childhood is divided into a developing part and a regressing part, and that the regressing part tends to be symbolized by a pet such as a puppy identical to the vulnerable, innocent, and hidden self, or a figure such as a special horse or bird (Kalsched, 2013).

The bond between humans and animals has always existed, and humans often overcame trauma by being comforted on a physical, emotional, and psychological level through bonds with animals. In particular, there are studies indicating that companion animals restore emotional balance, promote physical activities and social interactions, and improve stress coping ability by helping companion persons regulate their emotions (Wells, 2009; Zilcha-Mano et al., 2012). There are also studies indicating that persons who raise animals that can communicate emotionally, such as dogs and cats, are able to perceive the same social and emotional support they receive from human relations such as family and friends (Kim & Park, 2018; Amiot et al., 2016). From a study conducted by Sharkin and Knox (2003) too, it can be seen that many persons perceive that they receive unconditional acceptance, love, and support from their companion animals.

Dogs,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companion animals, are animals that have been best domesticated in the human environment and have a strong bond with humans to the extent that they are considered 'family' to humans. The consistent loyalty, pure affection, and love shown by dogs to their owners make humans accept them as members of their family and develop a deep attachment to them. Therefore, to humans, dogs are not just animals but are the targets of attachment, and humans take care of and love dogs as if they were taking care of their own children. In particular, the unconditional adaptability shown by dogs makes people's empathy and self-opening easier, and has the effect of opening the hearts of emotionally wounded people as well as people with disabilities through emotional sympathy. In animal-assisted therapy too, dogs have much more healing effects than other animals thanks to their ability to understand not only human emotions but also behaviors (Woo, 2013).

The deep sense of bond humans feel with their dogs is expressed in many symbols. In most cultures, the dog symbolizes loyalty, vigilant attention, courage, and hunting skills. In Celtic

tradition, the dog symbolizes masculineness, the sun, wind, and fire, and is also associated with healing (Turner, 2005/2009). In Korea, the dog is the eleventh animal god of the zodiac and is a symbolic animal that has been recognized from old times not only for roles such as defending the home, hunting, guiding the blind, and bodyguard but also repelling demons, diseases, goblins, and evil spirits, and as guides between the dead and the angel of death, and a companion. The dog has also been believed to bring good things to home and warn and prevent disasters in advance because the dog's instinctive characteristics such as excellent sight, hearing, and sense of smell keenly sense sounds that cannot be perceived by humans and things in the dark. The abilities of dogs as such are instinctive behavior, not reason, and instinct is very important in the healing process.

In sand play, the client's ego, regardless of the chronological age, tends to regress to a more visceral early stage of life, without the wounds of nurturing and support, like a newborn baby (Turner, 2005/2009). Therefore, the characteristics and symbolism of dogs have the meaning of affectionate relationships for those who experience difficulties in attachment, attachment trauma, etc. for various reasons and have difficulties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even in adulthood. We often see clients suffering from unknown inner fears begin the process of healing after unconsciously choosing a figure that suits them in sand play. Since the dog has the symbolism of a psychic medium connecting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Cooper, 1978/2012), if we see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as a symbol of moving from one developmental stage to the next, the dog can be said to have a symbolism in terms of instinct that enables moving from the psychological state due to traumatic attachment to a healthy attachment state.

In this paper, the symbolism of the dog, a companion animal, will be described from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and present a case of a client trying to become independent from a negative attachment relationship in sand play therapy.

II. Attachment and Dog

Since attachment is a continuous and strong emotional feeling with a significant other (Bowlby, 1982), when seen based on the attachment theory, if a person feels the emotional satisfaction one person can receive from another person from an animal rather than a person, it can be considered attachment between a person and an animal. In many previous papers, it can be seen that the attachment that a person forms with a companion animal is very similar to that between people (Jeong, 2019; Brown et al., 1996; Field et al., 2009; Kurdek, 2009; Zilcha-Mano et al., 2012).

Psychologists have expressed the phenomenon for a person to feel attachment to a dog as 'a mother phenomenon', and the reason is related to the cute appearance of young puppies (Kim, 2010). When people see a baby, the baby also triggers an attachment reaction similar to that of a puppy. Given that attachment is formed in a mutual relationship rather than a one-sided relationship, the appearance of an infant or puppy can be seen as playing an active role in eliciting care by himself/herself, rather than simply a passive being cared for. Therefore, researchers viewed the human-animal bond from the perspective of attachment when they were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companion animals (Hosey et al., 2018) because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on animals and people seems similar to parent-child affection, parenting, responsibility, and relationships (Walsh, 2009). In addition, companion animals are suitable for attachment formation because they can form emotional interactions with people, and there is also a study finding indicating that young children showed attachment behavior to companion animals (Melson & Fogel, 1989). In addition, there is a study indicating that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s controls childhood trauma (Kim, 2022), and a study on adolescents indicated that companion animals served the role of a safe outlet for expressing emotions when experiencing stress, and provided emotional support when lack of contact with friends led to loneliness (Muldoon et al., 2019). There is also a study indicating tha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ompanion animals helped adolescents maintain a consistent routine and reduced uncertainty by providing predictability of adolescent behavior (Nieforth & O'Haire, 2020). There is a study indicating that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s is strongest in early puberty and decreases with age, further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ttachment to companion animals for children in the growing process (Mok, 2022).

With regard to attachment, dogs are man's old friends and started living with humans 14,000 years ago. The long-standing intimacy between dogs and humans can also be seen in the scientific name "Canis lupus familiaris," that is, domestic dog (Kim, 2010). Dogs were originally wolves, and according to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hungry wolves ate food abandoned around people's residences due to abnormal weather such as cold, and domesticated themselves to adapt to people and became dogs, a new animal. Therefore, the dog has become an animal that actively acts to come closer to people and form relationships with them.

When a dog naturally recognizes a person as its boss at a critical time, it regards the person as a target of attachment, shares emotions with the person, and naturally assimilates into the person's life to form a good relationship. In addition, it expresses its desire related to attachment, such as absolute loyalty to the owner, a desire for affection, and a desire for a relationship to be together with the person. The dog's pure attachment behavior as such creates positive emotions such as joy and laughter, and physical contact with the dog can be therapeutic as it provides psychological stability (Rujoiu & Rujoiu, 2014; Sable, 2013; Walsh, 2009).

III. Symbolism of Dogs

1. Symbol of loyalty

One of the reasons why people like dogs is their constant attachment behaviors such as throwing themselves into people's arms, acting cute, and approaching while wagging the tail even when scolded. Even if people abuse and abandon dogs, dogs do not bite their owners with their sharp teeth, do not retaliate against abandonment, rather search for their owners who abandoned them, and sometimes sacrifice for their owners. Because of the blind loyalty and dedication to the owner as such, people felt special feelings for dogs, and loyalty became a representative symbol of the dog.

Among folk tales of the Goryeo Dynasty in Korea, the story of 'a righteous dog that saved its owner from fire' is a very famous story related to the loyalty of dogs. Once upon a time, a man named Kim Kae-in had a dog, and one day he went to a neighboring village and fell asleep drunk on the way back. But a spark fell from the tobacco pipe he was holding in his mouth and set the grass on fire. The dog barked "bow-wow" to wake the owner, but he didn't move at all. Then, the dog dipped himself in a nearby ditch and rolled around to put out the fire. When the owner woke up, only the area around him was not burned, and the dog was burnt black to death next to the area. The owner, who saw it, was moved by the dog's loyalty, and made a grave for the dog and cut a tree to make a monument. This tree was called Osu consisting of "o (獒) for dog" and "su (樹) for tree" meaning "dog tree," and the village came to be called "Osu" thereafter. This story is handed down in Osu-ri, Dunnam-myeon, Imsil-gun, Jeollabuk-do, and a dog monument is still erected at the entrance of the village.

As such, the dog is a symbol of devoted loyal servants, and in particular, the loyalty of dogs is well depicted in folktales of the Joseon Dynasty. Since Yi Seong-gye, the first king of the Joseon Dynasty, seized power through a coup d'etat, he was wary of treason and encouraging pictures of dogs to emphasize loyalty (Lee, 2006). Among them, paintings of dogs under trees, such as Lee Am's Flower, Bird, and Dog (花鳥狗子圖) and Mother Dog (母犬圖) and Kim Du-ryang's Black Dog (黑狗圖), are famous. This is because dog is '戌' (sool for dog) and tree is '樹' (soo for tree) so that '戌' has the same sound as '戌' (soo for defending) as well as '樹' (soo for tree) and thus is identified with tree and defending. That is, paintings of a dog under a tree became a symbol of defending the house well to prevent the intrusion of thieves as those paintings became, 'soosoosoo (戌戌樹守)', which means defending well to prevent theft. In addition, since defending and protecting the owner's property is the same as being loyal to the owner, the dog under the tree has become a symbol of loyalty to the owner (Park et al., 2001). In addition, our ancestors drew a dog on

the brazier that held the charcoal fire and this meant to keep the fire in the house from going out (Park, 2005).

Among dogs, especially Sapsal dogs were said to prevent thieves from entering the house and protect grain and goods, so they were drawn and attached to shed doors or gates, and such drawings were called Munbaedo (門排圖). The dog's loyalty to its owner has become a symbol of crime prevention to protect valuables, and dogs even became to have the nature of a guardian deity that protects wealth and health while at the same time defeating evil spirits and diseases. The dog-shaped drinking horn made in the Shilla Dynasty was also intended to make a symbol of a guardian deity that protects people well by carving the image of a dog in the shape of a god. Dogs often appear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burial goods of the Iroquois, the natives of North America, because they believed that a dog's love and loyalty to its owner extends to the grave. When a dog is excavated from a tomb, it connotes two meanings: the hope that everyday life will be reproduced in the afterlife and the exorcism (protection) (Min, 2019). The Yellowy, that resembles the Jindo dog depicted in the murals of Gakjeo Tomb of Goguryeo, can also be seen as a guardian dog that protects the owner of the tomb with clear eyes. In the ancient Maya civilization too, there was a custom of burying a dog as a soul mate when a person died, and Persia also worshiped dogs as watchmen and protectors of humans. In Chinese legends, the foo dog appears as a guardian deity that protects people and their property and drives away demons.

Also, in Homer's 'Odyssey', there is a story that Odysseus, who returned to his hometown after 20 years of wandering, shed tears for the loyalty of his dog 'Argos', the only dog that recognized him, and Argos died after seeing Odysseus (Kim, 2010). Among the proverbs in Korea, there are sayings such as "A dog recognizes its owner after it has been raised for three days only" and "Dogs will not betray people even if people abandon them.", and these sayings express the loyalty of dogs that are devoted to their owners with every fiber of their beings.

As such, a dog's loyalty to its owner is related to its characteristics. Dogs work in groups, and their hierarchy is strict and thus when the ranks are not set, they fight to determine superiority and inferiority, and when the ranks of superiority and inferiority have been determined, they obey and cooperate. Therefore, when a dog recognizes a person as being at a higher rank than itself, it becomes loyal to the person. In particular, if a dog recognize a certain person as an absolute being, it be loyal to that person to the end. However, a dog's loyalty to the end can be seen as a different form of domestication as being habitually, blindly, and completely dependent on the owner.

2. Symbol of healing

The dog, associated with Asclepius, the god of medicine, symbolizes healing from illness by being reborn into a new life. The god of hunting, god of war, hero, and god of healing. Not even followed by dogs, and even to the Celts, dogs are symbolically connected to the river of healing (Cooper, 1978/2012).

Sigmund Freud, the founder of psychoanalysis, used a dog called 'Zophie' when he was treating patients. He found that the easy-going character of Zophie made the treatment process easier by putting the mind of the patients, especially children and adolescents, at ease when they arrived at the strange place. In fact, he confessed that he took much of Zophie's opinion into consideration when figuring out the patients' mental states, and said that since Zophie tried to stay away from patients with high stress levels, he grasped the patients' mental states through the physical distance between Zophie and the patients or the way they interacted with each other before he treated the patients (Kim, 2010).

Levinson, a psychiatrist in the 1960s, witnessed the amazing fact that children waiting for treatment in the waiting room recovered spontaneously without treatment while playing with dogs (Levinson, 1972). Thereafter, he had a belief in the treatment effect of companion animals, actively implemented therapy dog mediation programs in various areas to prove the effectiveness, and actively utilized animal-assisted therapy as an incidental necessity for traditional treatment (Woo, 2013). As such, through living or interaction with animals that are alive, have emotions and a warm body temperature, clients' cognitive, mental, social, and psychological development and adaptability can be improved (Woo, 2013).

According to study findings in the fields of brain science and neuroscience, the human brain is largely divided into three parts: the neocortex, the limbic system, and the brainstem. The neocortex is in charge of reason, the limbic system is in charge of emotions, and the brainstem is responsible for physiological autonomous functions such as respiration, blood pressure, body temperature, and pupillary reflex. By the wa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udies of mammalian brains, the neocortex of dogs is a little smaller compared to humans, but the limbic system of dogs is very well-developed indicating that although dogs are somewhat inferior to humans in terms of rationality, they are very similar to humans in terms of feeling emotions. Zoologists also said that dogs can sufficiently feel emotions because they have a mature limbic system like humans (Kim, 2010).

Moreover, dogs quickly understand human emotions as well as human behavior. The reason is that they react after seeing humans' subtle body tilt or facial expressions with their eyes. Thanks to the characteristics of dogs as such, trained psychotherapy dogs are very effective in opening the closed doors of mind of not only persons with mental and physical diseases

or disorders but also those who have been emotionally wounded (Kim, 2010). In addition to psychotherapy dogs, there are also cancer cell detection dogs and seizure warning dogs. Seizure warning dogs live with their owners 24 hours a day and play the role of signaling immediately before the occurrence of a seizure by barking or hitting the body of the owner with their paw because dogs can detect minute changes in the body with smell.

In the healing process, our reason must be guided by our instincts. In fact, instincts cannot explain things rationally, but they lead us to healing behaviors more surely than reason. Our inner dog instinctively figures out what we need to heal ourselves. In addition, it finds out treatment methods that fit us, intuitively figures out therapist who can help us, and acts unconsciously in the healing process.

We often encounter clients who use sandbox dogs to heal their emotional difficulties. Client A, a woman in her 20s, built a small playground with sand in a sandbox. She then placed a girl sitting under the playground, placed a large dog next to her, and said, "You are safe because the dog is protecting you." At that time, as she entered university, she came to a distant city from her place where she grew up in the full care of her dad as her parents divorced in her childhood. As she was very anxious about living alone away from her dad for the first time, she placed the dog in her sandbox to meet the visceral energy of the dog in her inner side instead of giving up her dad, and thereafter, she began to protect herself.

In addition, client B, who was a middle school student, made a living room where all her family members were gathered in a sandbox, and placed herself facing her puppies in the corner of the living room. The child, who was watching these puppies attentively, figured out her loneliness in her family, and when her counseling was over, she started raising her puppies by begging her mother. This case can be seen as a case where the child actually raised dogs to heal her attachment wounds in her family relationship through reattachment to the dogs.

3. Guide of the unconscious

Dogs have been symbolized as mediators connecting this world and the next world from ancient times. In almost all cultures of the world, dogs are expressed as playing the role of guiding the dead to the next world because people thought that since dogs were friends of humans in this world, dogs would serve as intermediaries and take the role of interpreters between the dead and the gods of the next world even after death. Therefore, dogs were perceived as gatekeepers guarding the boundary between this world and the afterlife, guardians of passageways, attendants of the dead, and animals that lead souls to the next world (Cooper, 1978/2012).

In Greek mythology, Cerberus, a three-headed dog, is a guard dog that guards the entrance to the underworld ruled by Hades. It is said that this dog guards the entrance to the underworld, and when the soul of the dead arrives in the underworld, it passes through it as it is, but if the soul tries to escape, it runs and catches the soul and eats the soul (Min, 2019).

Due to the perception as such, dogs were sometimes sacrificed in front of graves to lead the dead to the afterlife and sometimes to accompany the dead on their way to the afterlife. The Mayans also buried dogs when their owners died and so that they can be used as guides to the next world. In Mongolia too, dogs and horses were always buried with their owners. Also, in ancient Persia, when a person was dying, the person had to give dogs bread or meat so that the dogs could lead him to the next world. Dogs appeared at the places of death and followed the funeral procession. In addition, when a pregnant woman died, two dogs were placed in the grave so that one dog would guide the woman and the other the unborn child's soul. The reason was that dogs were believed to be guides of the soul (Cooper, 1978/2012). In many places in Africa too, dogs were sacrificed in people's graves for the same reason. Also, in an underground cemetery near the Nile River, assumed to have been made around 1000 B.C., various animals, including dogs, were found buried next to their owners (Kim, 2010). The ancient Egyptians also did not think that death was the end. Therefore, so when burying the dead, they included a scroll called the "Book of the Dead," which describes the process for the soul to the world after death. In the Book of the Dead, there is a scene in which the dead are judged in front of Osiris, the god of the next world, whether the dead have done good or bad things in life, and Anubis, a god with black head, weighs the conscience of the dead on the scales. Anubis is the god of death who presides over funeral ceremonies and guides the dead to the king of Osiris, and has the shape of a large black wild dog or a human body with long ears and a pointed snout as the name means 'a person with the appearance of a wild dog' (Kim, 2010). In the funeral process of Zoroastrianism, dogs help removal of flesh from the corpse, but also play the role of confirming death in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corpse leaves the house and guiding the soul to the place where the soul is judged. Therefore, in Zoroastrian funeral process, the dog has a very special meaning. The Iroquois, the indigenous people of North America, held especially white dogs sacred regarding the dogs as the mediators of God. A white dog appears in the movie 'Bridge to Terabithia.' A female student named Leslie moves to the house next door to the lonely 12-year-old heroine Jesse because she transferred to her school and this girl is a girl who is good at running and writing with excellent expressive skills. As the two become friendly, they cross into the forest on a swing rope hanging from a tree near the forest. They made the forest a hideout only for their shake alone, named the forest Terabithia, and made it their kingdom. In this kingdom of the forest, imaginary things happen, such as the dark lord imprisoning the innocent people and occasionally sending squirrel goblins and giant monsters to attack the weak people. Here, the animal that guides

the two to the forest symbolizing the unconscious is a white dog (CUSPO, 2007).

In Korean shamanic myths and tales of the next world, there is a white dog that guides the way from the next world to this world when one is reincarnated after death. In Jeju Island's shamanic folktale 'Chasabonpuri' part, a white dog appears as an animal leading the way from the next world to this world (Cho, 2005). In addition, in the tale titled the origin of Gaeheung Rock, the dog has the meaning of a guide who brought a child from the sky to the real world (Kim, 2011). In the Goguryeo tomb mural in Deokheung-ri, where a cowherd and a weaver girl are depicted, a cowherd with a cow and a weaver girl with a black dog are depicted indicating that a dog is serving the role of a guide that conducts meetings in the next world in the folktale titled the Weaver Girl and the Cowherd. As such, in Korea too, dogs were recognized as faithful guides and friends in the spirit world as an animal that performs the function of mediating between this world and the other world (Park et al., 2001).

The place described as the land of death in most myths and religions symbolizes the unconscious of the human mentality, and as can be seen in the myths and legends cited above, dogs have a strange relationship with the unconscious. For the healing of the human mentality and for individuation furthermore, we start descending into the deep unconscious that can sometimes be likened to death, and we should be guided by our inner instinct, that is, 'dog' so that we can well go to there.

4. Symbol of instinct and intuition

Instinct is regarded as having the same root as the archetype (Jeong, 2008). Therefore, the human archetype is connected to the instinctive behavior of animals. Humans always have instincts and patterns of archetypes wherever there are forms that regularly appear repeatedly (Lee, 1978). The aspects of instinct and archetype can express the same meaning in different forms. Instinct has the ability to recognize the essence of things right away, sometimes without analysis by reason and intellect, that is, intuitive power. Many animals have such aspects, but dogs in particular have eyes that instinctively and intuitively analyze things and see through appearances, and ears that can hear sounds that normal humans cannot hear.

Dogs are a symbol of instinct and intuition,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symbolized as animals related to the spiritual world because of their sense of smell and hearing, which are close to supernatural powers. Dogs recognize smells with their noses rather than sights to take the direction, and then find the way once they have gone without losing their way. In Korea, there is a story about a dog that actually came to the house in a book titled 'White Heart Baekgu'. Elderly woman Park, who was living in Jindo-gun, sold a 5-year-old white dog Baekgu she had been raising since it was a puppy to a dog owner living in Daejeon.

It's a story about running back. People who own dogs can experience something similar. Baekgu, which was missing its owner, came back alone by running a distance over 300km losing weight to look like a skeleton after cutting the dog lash. Persons who own dogs can experience something similar commonly. My dog also always comes back to where I am, even if I'm out of sight or far away from a walk of the two of us. The reason why dogs can come back like this is that dogs use instincts such as smell and hearing, not reason.

Men of old times, who thought that dogs had some kind of magical powers, regarded dogs as sacred animals as they thought that dogs communicate with God after seeing that dogs could see the movement of objects in the dark of the night and bark after hearing sounds that humans couldn't hear. Many clay figure in the Silla Dynasty are dog-shaped and the reason was that people at that time believed that dogs would drive away evil spirits thereby bringing peace (Kim, 2010). In addition, in the painting titled 'God Dog Figure (Shingudo; 神狗圖)', three eyes were drawn in the dog to scare away ghosts, and god dog figures were frequently used as a talisman because a dog with three eyes was thought to drive away the Three Disasters (Park, 2005). In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it is recorded that Mrs. Yuhwa gave birth to an egg of the size of a five doe measure and King Geumwa gave to the egg dogs and pigs, but the dogs and pigs did not eat the egg. In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 it is written that the dogs of Sabiseong cried sadly toward the royal palace before the fall of Baekje (660) (Park et al., 2001).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deok of Shilla, a dog climbed into the palace tower and cried for three days, after which the king died. Also, during the reign of King Uija, a dog came to the riverbank of Sabiseong riverbank and barked at the palace, and thereafter Baekje was destroyed (Park et al., 2001). Likewise, the Ainu of Japan believed that dogs had the ability to identify ghosts and that dogs could detect the presence of ghosts.

Sapsaree in Korea is a dog raised by the royal family of Silla and is known as a dog that chases ghosts away. Sapsaree's long hair exudes a powerful energy like a lion's mane, and it is said that General Kim Yu-shin took the brave Sapsaree with him as a military dog. As there is a proverb that says, 'Where Sapsaree is, even ghosts dare not come around', the name Sapsaree per se means a dog that chases away demons (bad luck) away. In particular, it has been believed that white dogs not only have the ability to ward off contagious diseases, disease goblins, and evil spirits, but also bring good things to the house and warn and prevent disasters in advance.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mystical power of dogs is negatively recognized. When a dog raised at home cried sadly, it was said that someone in the family would die and the dog was sold and when a dog dug in the ground for no reason, it was thought to be a suggestion of digging a grave and the relevant persons got rid of the dog, prayed to the gods for the family to be safe, and prepared for misfortune while keeping a low profile (Park et al., 2001).

As such, instinct represents our blunted instinctive flashes or intuitions (Boa, 1988/2004), and instinct enables us to choose the person to help us heal and the figure we need for treatment. Often, in sand play therapy, it can be seen that clients say, "When I came to the treatment room, I thought I should make this, but after I choose and make a figure, a completely different box is made." In such cases, what moved the client's hands was not the client's reason, but instinct and intuition. Instinct cannot be rationally explained, but we need to follow it, and a person who has an instinctive intuition is sharp and agile like animals, and has the power to live life confidently.

5. A dog in a sand play therapy case

The symbolism of the dog mentioned above also appears in the sandbox. The following is a description of a case where the symbolism of a dog appeared well. Client C was a male sophomore in high school. He hated going to school and spent a lot of time focusing only on his appearance and releasing his spirit. Client C's mother wanted to raise her child well and be recognized by Client C's biological grandmother because the client's grandmother opposed the marriage because of her low educational background. Therefore, she expected a lot from client C, and client C did very well in school, exceeding her mother's expectations. Moreover, he had good friendships and thus his mother was proud whenever she saw client C. His mother, who wanted to give client C a better chance and make him more successful, unreasonably moved to a big city when client C was in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but client C could not adapt there. He could not make new friends and ended up becoming an outcast. His school grades also fell to low ranks, and at the time when treatment of him was requested, he was strongly demanding his mother to allow him to leave the school, saying he did not want to go to school. To the mother who was worried about client C, who was unable to get along with his friends, client C answered that he was unwilling to get along because his friends were at low levels.

Client C's father thought that client C, who was always whining at his mother, was not manly, so he scolded him and soothed him many times, but as he did so, client C feared and avoided his father, and when he had something to say to his father, he begged his mother to act for him. The father, who was even more angry at the foregoing, was watching for chance to fix his mind by kicking out client C or punishing him. The father did not want client C's counseling because he judged that client C's behavior was due to client C's weak will. Therefore, when he found out that he was receiving counseling, he was furious and immediately came to the counseling room and took client C. At that time, client C was in the middle of the 5th session of counseling. In fact, the client had difficulty expressing his/her opinions even in peer relationships, was unable to do anything proactively, and when he had to do something difficult, he did not even try or tried to do it through his mother. He also blamed others as an excuses when he was blamed or when he did something wrong.

That was the reason why his mother referred him to counseling.

In session 1, client C made an island by collecting the sand in the middle of a box. He placed a big house in the center left and said it was a grand mansion, where he was living alone. He also hid many tanks and fighter planes around the house and said that they were weapons with which he could shoot when someone came in and that the fighter planes behind the trees were hidden on purpose. It was as if it had been prepared for someone's invasion. There was a small boat floating on a round lake on the island, and client C said that he sometimes took a rest lying in the boat while guarding the house. The big house seemed too big to live alone, and the tanks and fighters around it seemed too desolate.

An island, especially an island that appeared in the sea, is a part of the land completely surrounded by water (Turner, 2005/2009), symbolizing an isolated self and a refuge or paradise (Fontana, 1994/1999). Islands are also places of creation and birth, and are often associated with death (Ammann, 2001/2009). Client C's words about resting on a small boat in the lake reminded me of a fetus floating in amniotic fluid in the womb. Client C's ego appeared to have psychologically regressed into the mother's womb with no initial scars. The tanks and fighter planes deployed around the house were defenses to protect this space. The impregnable defense as such on an island that is not easily accessible can be seen from two sides. An aspect of defense against intervention of outsiders due to serious intrusive experience in the child's life and an aspect of guard to protect the Temenos space for rebirth. Neumann described that any extension of conscious awareness includes a psychological retracing of the early developmental process, and that through each internal transformation the ego should die and must be reborn in a more conscious relationship with the self (1973). Therefore, in this session, it seemed that client C's ego returned to an earlier stage of development for healing.

In session 2, after placing a large house, sweeping the sand with his hand, client C said, "This is the front yard of the house. There is grass and the dogs are playing on the lawn." However, he did not place the dog on the sandbox. Sand is a material that forms the earth and is the land of Mother Nature (Jang, 2017). It also symbolizes purification, healing, and sanctity (Cooper, 1978/2012). Client C touched the soft sand for a long time, and it seemed that contact was made with the original maternal archetype, the mother of the earth. Client C instinctively thought of a dog while touching the sand. Here, the invisible dog can be seen as the inner healing energy of client C, which has now begun to be visualized in the unconscious.

When the sandbox in Session 3 is viewed, it can be seen the parents and their married son live together in this house. The parents are very rich, so they have a big house and a lot of money. The father is the president of the company, and the son is the vice president. They



Fig 1. Sand scene from client C's session 3 (Subtitle: Happy Family)

don't have to work. Therefore, the parents and the son couple go on an overseas trip at any time, drive a good car, enjoy speed, and go out to eat delicious food. After explaining the sandbox, client C suddenly took a closer look at the car and said, "Huh? Is the car drowning in the sand?"

In this house, there is the son called 'Baby' although married. This son doesn't have to work thanks to his rich parents. He only thinks how to play relying on his parents without becoming independent despite that he is married. He exhibits attitudes at a level of consciousness that does not fit his age. Client C was very close to his mother. He was the son loved the most by his mother, and he was so completely dependent on his mother that he had not developed his independence, that is, his own nature. The state where the car symbolizing the ego is drowned in the sand and unable to move symbolically shows this. According to Neumann, in the early mother-child relationship, the child i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mother. At this time, when the mother contains the child's unconscious aggression, gives warm and nutritious food, and is always with the child, the child experiences a good enough mother, develops trust in a safe and reliable environment, and form secure attachment (1973). The initial solid mother-child relationship helps the child develop the emotional skills and personality needed to benefit from the unconscious material that arises throughout life (Turner, 2005/2009). Client C should contact his instinctual realm without fail for his reattachment. In this session's sandbox, the puppy is running and playing around the house without any worries. It is a white dog with round eyes and a very cute appearance. However, just as Neumann's words indicating that in order for the ego to develop, it is necessary to separate from the unconscious mother's energy, client C must be guided by a white puppy to leave the house symbolized by mother (1973).



Fig 2. Sand scene of client C's session 4 (Subtitle: Landmark of 00)

The gray building on the top left is a landmark owned by client C. It is a very tall building. When entered through the gray arched door placed in front of it, a space for people to enjoy unfolds. There are places to take pictures, old ruins, places to take a rest lying down and a small lake. There is a castle where scary ghosts appear and a forest consisting of big trees. While explaining this place, Client C hesitated for a moment, and then said, "I am looking down at this place from the top floor of this landmark. Um... this is actually a dungeon." The landmark here has a lot of good things for people to enjoy, but it's actually hell. There is no one there and the atmosphere is very static. Client C's unconscious energy is stagnant. The Christmas tree in the center is placed close to the entrance, so it seems to be an expression of client C's desire to reveal himself. But it can be seen only when looked closely. The two puppies holding a heart, seen from the front from the entrance, are very close to each other. It appears to be the actual 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 and mother. The two bears sitting on the chair seem to be intermediate objects in the process of mental development. The intermediate objec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emotional separation from the mother. However, the bear lying on a bikini chair in the center left wearing sunglasses turned his head and looked away indicating that he recognized independence but seemed to be trying to avoid it. The Eiffel Tower, symbolizing of masculinity, is hidden behind a forest. The Statue of Liberty, symbolizing freedom, is also hidden behind a forest. The forest is a realm of death ruled by unknown danger and darkness (Cooper, 1978/2012). Separation from psychological dependence on mother requires courage enough to risk death. To do so, a new, independent masculine energy must come in from the upper left corner where client C's landmark is standing.

Client C said, "This is a village, and Pierrots are playing music in the square. It's a festival day in the village... Firecrackers explode in the night sky, and everyone is happy. I don't know what kind of festival it is. If you put a letter in this mailbox, it will arrive even if it



Fig 3. Sand scene from client C's session 5 (Subtitle: One Summer Night's Dream)

takes a long time.”

Dora Kalff explained that when a sufficient sense of stability is established in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the child's mind separates from her mother's mind and turns to the outside world (Turner, 2005/2009). In this session, there are two dogs guarding the door, and their colors are opposite, they are big, and they have distinct expressions. The emergence of consciousness appears in the form of facing each other in a position of confrontation. It is starting to polarize because it is no longer included in the mother's mind. Thus, the black dog of the two seems to symbolize separation from the mother's energy of the unconscious. Behind the dog, fantastic things are happening like a one summer night's dream. A festival is taking place in the town square. When looked closely, it can be seen that the figures are placed close to the center of the sandbox in a large circle. The circle is a symbol of wholeness. Wholeness is revealed through symbols when the center is solidified in the child's unconscious (Kalff, 2000/2012). When the centralization of the mind is achieved, healthy ego development will appear in the next stage, and when self-energy and ego are reconnected, children's emotions tend to balance, disconnected aspects are integrated, and as a result, order is established in daily life (Jang, 2017). A festival is a self-celebration party for the emergence of the self. The two dogs sitting at the entrance are looking elsewhere with eyes full of curiosity. Given that they are facing the outside world, it can be seen that client C's ego is turning its eyes away from the inner world and is connecting with the outside world more actively. At the end of this session, the counseling was forcibly terminated by the father. While tidying up the sandbox, I became curious about the meaning of the postbox placed by client C. To whom was the letter that would surely arrive someday sent? Client C, who intuitively sensed the end, probably sent a letter to his future self. And someday when this letter arrives, he will start his journey again with the dog that symbolizes him.

IV. Conclusion

The dog is a symbol of instinct and intuition, and a symbol of a medium that connects this world with the other world traditionally and in many cultures. It is also an animal that brings healing and symbolizes unending loyalty to humans. In the case of sand play therapy, the symbolism of dogs as such was well revealed. The excessive bond with the mother to the extent that it interferes with independence is fundamentally derived from attachment trauma, but ultimately it is a complex that must be overcome and become independent from. In that journey, the dog is a symbol of healing, and on the way from this world to the other world, that is, from the present immature developmental stage to the next stage of development and insight, the dog temporarily replaces motherhood and, at the same time, can be said to be a symbol of companion in the process of ultimately winning independence.

The case exemplified in this paper is about adolescent client C, who was unable to achieve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his mother appropriately for his developmental stage, and this client intuitively knew what he had to do in the sandbox. Then, guided by the inner 'dog', he embarked on a journey into the unconscious. In the sand play therapy, Client C dealt with the task of becoming independent as an individual and as a man from attachment and bond with her mother due to her overly 'positive' motherhood complex.

This case show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nto an independent adult man in the process of transitioning from a child to an adult, guided by a dog, a symbol of a "psychic medium" who is an inner instinct and intuition and leads to another world (i.e., a mature developmental stage). For this client, the experience of sand play therapy seems to have the meaning of initiation into an adult man, that is, a symbolic adulthood. However, since individual growth and development does not end with becoming an adult, but is gradual and spiral, he will have to continue to be guided by his inner "dog" until he ultimately reaches death.

Lastly, this study looked at the process in which attachment trauma and the dog's symbolism are seen to be curative in sand play therapy through cases, which were not attempted in previous studie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in-depth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since one male high school student was the subject in this study,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 findings, so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bjects in terms of gender and age.

Second, it is necessary to have longer sessions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see the changes

of the client in daily life due to the short sessions.

Despite the above limitations, it is judged to be a good case where the client's unconscious journey from attachment trauma to independence appeared well through the symbol of dogs and due to the short sessions, regretfully, the psychological journey is left as a task for the client.

References

- Amiot, C., Bastian, B., & Martens, P. (2016). People and companion animals: It takes two to tango. *BioScience*, 66(7), 552-560.
- Ammann, R. (2009). *Das sandspiel: Der schöpferische Weg der Persönlichkeitsentwicklung*. (Y-K. Lee, Trans.). Seoul: Institute of Analytical Psychology.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 Boa, F. (2004). *The way of the dream*. (H-S. Park & C-I. Lee,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8)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
- Brown, B. H., Richards, H. C., & Wilson, C. A. (1996). Pet bonding and pet bereavement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5), 505-509
- Cho, W-C. (2005, December 30). A dog in folklore, a loyal servant who prevents disaster and protects happiness. *Kyunghyang Newspaper*.
<https://www.khan.co.kr/culture/scholarship-heritage/article/200512301708511>. Accessed November 2, 2022
- Cooper, J. C. (2012). *An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traditional symbols*. (Y-G. Lee, Trans.). Seoul: Kkachigeulba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8)
- Cuspo, G. (2007). *The Secret Forest of Terabithia*. [Movie]. Walt Disney Pictures.
- Field, N., Orsini, L., Gavish, R., & Packman, W. (2009). Role of attachment in response to pet loss. *Death Studies*, 33(4), 334-355.
- Fontana, D. (1999). *The secret language of symbols: A visual key to symbols and their meanings*. (S-J. Choi, Trans.). Seoul: Munhakdongne.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 Hosey, G., Birke, L., Shaw, W. S., & Melfi, V. (2018), Measuring the strength of Human - Animal bonds in zoos. *Anthrozoös*, 31(3), 273-281.
- Jang, M-K. (2017). *Analytical psychological sandplay therapy*. Seoul: Hakjisa.
- Jeong, I-S. (2008). *Conversation between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Seoul: Daewangsa.
- Jeong, M-J. (2019). *Adult companion animal loss experiences and complex grief*.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Ewha Womans, Seoul, Korea.
- Jung, C. G. (2009). *Man and his symbols*. (Y-G. Lee, Trans.). Paju: Yeollinchaekdeul.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Kalff, D. M. (2012). *Sandspiel: Seine therapeutische wirkung auf die psyche (4. Auflage)*. (B-S. Lee,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0)
- Kalsched, D. (2013). *Trauma and the soul*. London: Routledge.
- Kim, C-S. (2011, October 25). Origin of Gaehwabawi-Wondong-myeon, Yangsan-si. *hometown story*. <https://blog.naver.com/kcs022/140142858022>. Accessed October 30, 2022
- Kim, J-H. (2022).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anion animal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rauma experiences and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onam, Gwangju, Korea.
- Kim, S-H. (2010). *All dogs are different: 51 Dog stories hidden in time*. Seoul: Petian Books.
- Kim, S-Y., & Park, H-I. (2018). The effect of companion animals on happiness through support-seeking emotion regulation: a mediation model regulated by mindfulnes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Health*, 23(4), 1001-1018.
- Kurdek, L. A. (2009). Pet dogs as attachment figures for adult owner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439.
- Lee, B-Y. (1978). *Analytical psychology*. Seoul: Ilchokak.
- Lee, Y-S. (2006). *The symbolic world of our culture seen through animals and numbers*. Seoul: Hunmin.
- Levinson, B. M. (1972). *Pets and human development*. Springfield, Ill: Thomas.
- Melson, G. F. & Fogel, A. F. (1989). Children's ideas about animal young and their care: A reassessment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development of nurturance. *Anthrozoös*, 2(4), 65-273.
- Min, B-H. (2019). *Zodiac cultures of eurasia*. Gwacheon: Jinjinjin.
- Mok, S-Y. (2022).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human-animal bond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onkwang, Iksan, Korea.
- Muldoon, J. C., Williams, J. M., & Currie, C. (2019). Differences in boys' and girls' attachment to pets in early-mid adolescen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 of Psychology*, 62, 50-58.
- Neumann, E. (1973). *The child: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nascent personality* (R. Manheim, Trans.). London, UK: Maresfield Library.
- Nieforth, L. O., & O'Haire, M. E. (2020). The role of pets in managing uncertainty from COVID-19.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2(S1), S245.
- Park, H-W., Jeong, Y-H., Choi, Y-S., Cheon, J-K., & Hong, S-S. (2001). *Traditional culture and symbols 1*. Yongin: Gangnam University Press.
- Park, Y-S. (2005). *The story of animal symbols in artifacts*. Seoul: Naeirachim
- Rujoiu, O., & Rujoiu, V. (2014). Pet loss and human emotion: Romanian students' reflections on pet los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9(5), 474-483.
- Sable, P. (2013). The pet connection: An attachment perspective. *Clinical Social Work Journal*, 41(1), 93-99.
- Sharkin, B. S., & Knox, D. (2003). Pet loss: Issues and implications for the psychologist.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4(4), 414.

- Turner, B. A. (2009). *The handbook of sandplay therapy*. (T-R. Kim, W-S. Kang, D-Y. Kim, E-J. Kim, H-J. Kim, R-G. Park, H-J. Bang, M-J. Shin, M-S. Shin, G-W. Lee, G-M. Lee, J-S. Lee, J-S. Lee, E-J. Jang, S-W. Cho & S-J. Cho,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Walsh, F. (2009). Human-animal bonds II: The role of pets in family systems and family therapy. *Family Process*, 48(4) 481-499.
- Wells, D. L. (2009). The effects of animals on human health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s*, 65(3), 523-543.
- Woo, J-K. (2013). *The effect of animal-assisted therapy using companion dogs on social skills in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Wonkwang, Iksan, Korea.
- Zilcha-Mano, S., Mikulincer, M., & Shaver, P. R. (2012). Pets as safe havens and secure bases: The moderating role of pet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6(5), 571-580. Received : September 26, 2022

Received : September 26, 2022

Revised : November 25, 2022

Accepted : November 27, 2022